그리스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2017. 1.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목 차

Ⅰ. 출장 개요 ····· 3

1. 출장목적 ····· 3

2. 출장지역 ····· 4

3. 출장단 ····· 4

4. 출장기간 ····· 4

5. 출장 세부일정 ····· 5

Ⅱ. 주요 결과 ····· 6

1. 그리스 정세 및 경제 개요 - 대사관 방문 - ····· 6

2. 그리스 정치 및 재정정책 -그리스 국회의원 면담- ····· 11

1. 기관, 방문자 소개 및 인사말씀 ····· 11
2. 한국-그리스 관계 소개 ····· 12
3. 의원내각제 체제하에서 국회지원조직의 역할 ····· 15
4. 예산 과정 ····· 16
5. 고대 그리스 및 현대 민주주의의 특징과 정수 ····· 16
6. IMF 채권단에 대한 증세조치 규모 및 증세수단 ····· 17
7. 탈세 근절을 위한 노력 ····· 18
8. 마무리 ····· 19
9. 기타사항 ····· 19

3. 그리스 경제 전망 및 지하경제 축소 정책 -IOBE 면담- ····· 24

4. 학회 참석 ····· 31

I. 출장 개요

1 출장 목적

❑ 유럽 국가들과 EU와의 관계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유럽의 정치·경제적 상황의 파급력은 한국 및 세계경제에 장기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속적인 관찰 필요

○ 영국의 EU 탈퇴(브렉시트)가 유럽 내 국수주의 기조로 전이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그리스는 2015년 긴축반대 정당이 집권하게 되면서 2012년에 이어 재차 유로존 탈퇴 가능성 제기

– 영국의 브렉시트 투표 결과(2016.6.23.),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의 승리(2016.11.9.)를 일각에서는 세계화에 대한 두려움으로 해석

– 막대한 국가 채무와 재정 위기로 2010년부터 유럽연합(EU),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 채권단으로부터 3차례에 걸친 구제 금융을 받은 그리스는 본격적인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채무조정이 불가피하다며 국제 채권단에 채무 경감을 요구하는 한편 내부적으로는 노동개혁, 추가 긴축재정 등 개혁을 추진

❑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재정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의 경제 연관성(해운업-조선업)이 높고, 지하경제의 규모가 비슷하기 때문에 각종 정책적 시사점이 있을 것으로 봄

○ 한국은 세계1위 조선강국, 그리스는 세계1위 해운강국으로, 그리스 선주들은 한국 조선업체들의 가장 큰 고객

○ 지하경제 규모는 우리나라의 경우 약 26.3%에 해당(OECD 33개국 중 6번째로 큰 규모); 그리스는 약 27%로 우리보다 높음

2 출장 지역

❑ 그리스 아테네 :

- ○ 대사관 방문
- ○ 국회의사당 방문 및 한-그리스 의원친선협회 면담
- ○ 국제 컨퍼런스 BESSH 참석 및 관계자 면담
- ○ 코트라 방문
- ○ IOBE 연구기관 방문

3 출 장 단

- ○ 박용주(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실장)
- ○ 신종숙(기획관리관 총무담당관실 총무담당관)
- ○ 심혜정(경제분석실 세수추계1과장)
- ○ 신영임(경제분석실 세수추계1과 경제분석관)
- ○ 안태훈(사업평가국 산업사업평가과 사업평가관)

4 출장기간

❑ 2016. 12. 13.(화) ~ 2016. 12. 17.(토), 3박 5일

5 출장 세부일정

일 시		주 요 내 용
12.13 (화)	00:50 11:25	인천 공항 출발 그리스 아테네 공항 도착
	16:00	대사관 방문
12.14 (수)	10:00 ~12:00	현 그리스 국회의원(신민당) 면담 - 면담자: Mr. Theodoros Karaoglou, Mr. Konstantinos Koukodimos
	14:00 ~15:00	국회의사당 참관
12.15 (목)	09:00 ~18:00	BESSH 컨퍼런스 참석 및 토론 08:00am – 09:00am Registration 09:00am – 10:30am Parallel Session I 11:00am – 12:30pm Parallel Session II 02:00pm – 03:30pm Parallel Session III 04:00pm – 05:30pm Parallel Session IV
12.16 (금)	10:00 ~12:00	IOBE(Foundation for Economic & Industrial Research, 그리스 산업경제연구소) 연구기관 방문 및 면담 - 면담자: Nikos Vettas 연구소장
	20:20	그리스 아테네 공항 출발
12.17 (토)	17:35	인천공항 도착

II. 주요 결과

1 그리스 정세 및 경제 개요 - 대사관 방문 -

* 대사관 방문 : 최근 그리스 정세 및 경제 현황 청취[1)]

❑ 개관

○ 인구: 약 400만명(교민 약 250명)

○ GDP: 1,948억불(2015년)

○ 경제성장률: -0.2%

○ 실업률: 25%

❑ 그리스 정세

○ 정부 형태: 내각책임제

- 대통령: Prokopis Pavlopoulos (2015.3~, 임기 5년, 의회간선)
- 총리: Alexis Tsipras (2015.1 취임, 시리자당)

○ 의회: 단원제(의석수 300석, 의원임기 4년)

- 국회의장: Nikos Voutsis (2015.10 취임, 시리자당)

○ 정당: 2015.9.20. 총선 결과 시리자(급진좌파연합), 희랍독립당 연립정부 유지

- 시리자(145), 신민당(75), 황금새벽당(18), 사회당(17), 공산당(15), 포타미당(11), 희랍독립당(10)

○ 최근 정치정세

(1) 시리자-독립희랍당 연정 출범

- Tsipras 총리는 그리스가 2차 구제금융을 지원받아(2011.7) 경제회생을 위한 막바지 긴축 노력이 한창인 시기에 치러진 총선에서(2015.1), 反긴축·인기영

1) 다음 자료는 대사관에서 받은 문서 자료 및 설명을 토대로 정리한 것임

합적인 정책을 내걸고 집권에 성공함

- 집권후 Tsipras 총리는 채권단과 그리스 부채탕감, 긴축정책 불가 등을 조건으로 3차 구제금융을 지원받는 방안을 협의하였으나, 독일 주도의 EU와 채권단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과거보다 더욱 가혹한 긴축 개혁 조치를 수용함
- 2015.9.20. 조기총선에서 시리자(SYRIZA)는 35%의 지지를 얻어 145석 확보, 10석을 확보한 독립희랍당과 연정을 통해 신정부를 구성함. 그리스 국민들은 부패한 기존 정치세력보다는 개혁을 주창하는 시리자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제공

○ (2) 난민위기

- 2015년 한 해 동안 그리스를 통해 유럽으로 유입된 난민·이주민은 대략 100만명으로 추산되며(대부분 시리아, 이라크, 아프간 출신), 2016년에도 5.13까지 155,765명이 그리스를 통해 유럽으로 유입됨(UNHCR 통계)
- 2016.3.18. EU-터키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난민위기 대응 방안의 핵심은 (1) EU로의 불법 이주 흐름을 강력히 차단하고, (2) 유입된 이주민을 터키로 송환시키며, (3) 송환된 이주민 수에 해당하는 난민을 EU회원국에 배분·정착시키는 것임
- 동 EU-터키 합의에 따라 터키는 (1)EU 가입 협상 재개, (2) EU 입국 비자 면제 추진, (3) EU로부터의 터키 내 난민·이주민 처리비용 확보(2017년까지 30억 유로, 이후 진전 상황을 보아가며 30억 유로 추가지원 가능) 등의 성과를 거양
- 최근 터키의 정세 불안 등에 따라 난민 유입이 급증하고 있으며, 그리스 전역에 7만 명의 난민들이 산재·고립되어 있어,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불안정이 지속되고 있음

❑ 그리스 경제 일반

○ 그리스 경제는 제조업 기반이 취약하며 관광·해상운수 등 3차 산업 중심

의 생산구조를 가지고 있음

- 산업구조(GDP 비중): 서비스업(81%), 산업 및 건설(16%), 농업(4%)

○ 그리스 경제의 문제점으로는 높은 재정적자, 낮은 산업생산성, 높은 수준의 구조적 실업률, 노동시장 경직, 연금 등 사회보장제도 비효율성 등이 지적됨

❑ 그리스 재정위기의 주요 원인

○ 2001년 유로존 가입 부작용

- 환율 불균형 조정기능 상실→경상수지 적자 심화
- 국채수익률 하락→신용팽창, 소비 및 건설설비 투자 급증

○ 부정부패, 정실주의(clientelism), 높은 지하경제 규모

- GDP대비 26.5%

○ 사회복지지출(2000년 19.3%→2010년 23.3%) 및 공공부문 보수 등 재정지출 확대

○ 소비, 관광 등 서비스산업 기반 경제구조 등(제조업 비중 10%)

❑ 그리스 경제위기 동향

○ 2008.9월 세계금융위기에 따라 2009년 그리스의 GDP 대비 재정적자가 −15.4%를 기록하고, 시장불안이 확산되는 등 경제위기가 발생함.

○ 2015.1월 총선 시 급진좌파연합(시리자)은 긴축정책 중단, 구제금융 조건 재협상 공약을 내걸고 승리함. (36.3% 득표, 300석중 149석 획득)

○ 2015.2-6월 시리자 정부는 △연금 및 임금 삭감 반대, △부채 탕감, △2015-16년 만기 도래 부채 상환 문제 해결 등을 양보 불가 사안으로 정하고 협상에 참여하였으나, 채권단 측 반대에 직면함.

○ 2015.7.5. 채권단의 긴축조치의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하여, 투표자 61%가 채권단의 제안에 대해 '반대' 투표함.

○ 2015.7.13. 유로존 정상회의는 마라톤 회의 끝에 그리스에 대한 3차 구제금융을 지원키로 합의함.

- 채권단은 그리스가 조세, 연금, 은행, 상품시장 개혁 및 민영화 조치를 시행하는 조건으로 3차 구제금융(860억 유로) 지원 합의
- 2015.8.14. 그리스 의회의 관련 법안 통과 및 유로그룹 회의의 승인으로 제3차 구제금융협정 체결

○ 2015.11.17. 채권단은 그리스의 48개 경제개혁조치 이행을 확인하고 제3차 구제금융 제1차 분할금(120억 유로) 지급에 확인함.

○ 2015.12.14. 그리스 정부는 독일 Fraport사와 14개 지방공항의 운영권을 40년간 부여하는 계약(12억 유로)을 체결(민영화사업)

○ 2016.5.24. 유로그룹 회의는 그리스의 개혁조치법안(긴축조치, 민영화기구 설립, 부실채권 시장 설립) 마련을 평가하고, 제3차 구제금융협정 제1차 이행평가 완료에 합의

- 채권단은 그리스측이 요구하는 채무경감 방안에 대해 원칙적으로 합의하였으며, IMF의 제3차 구제금융 프로그램에 참여할 가능성을 마련
- 유럽안정기구(ESM)는 6.21(화) 제3차 구제금융 총액 860억 유로 중 제2차 분할금(103억 유로)을 그리스에 순차 지급

○ 2016.7.4. 치프라스의 중국 방문 기간 중 그리스 민영화기구와 중국원양운수그룹(Cosco)이 피레우스 항만공사 지분 67% 매각 관련 MOU에 서명(민영화사업)

○ 2016.10월부터 제3차 구제금융 프로그램 제2차 이행평가가 개시 됨. 동 이행평가에서는 노동시장개혁, 부실채권 정리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됨.

❑ 최근 그리스 경제 동향

○ (GDP성장률) 경제위기에 따라 2008년 이후 2014년을 제외하고 매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여 2008년 대비 GDP가 25% 감소하였으나, 2016년

하반기부터 구조조정의 긍정적 효과와 내수경기·금융시장 등의 점진적 회복을 통해 플러스 성장세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됨. (※이하 통계는 Eurostat)

- GDP성장률 : (11년) −9.1 → (12년) −7.3 → (13년) −3.2 → (14년) 0.7 → (15년) −0.2 → (16년) −0.3 → (17년) 2.7

○ (물가) 정치적 불안정과 경기침체로 소비심리가 악화되어, 수년간 물가 하락세가 계속되었으며(주택 가격은 40% 하락), '16년 물가 상승률은 −0.3%로 전망됨.

- 실제 실물경기 회복 시까지는 최소 3~5년은 소요될 것으로 예상
- 물가상승률 : (14년) −1.4 → (15년) −1.1 → (16년) −0.3 → (17년) 0.6

○ (실업률 및 최저임금) 2015년 실업률은 24.9%, 청년 실업률은 49.8%로서 유럽 최고의 실업률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동 고실업률은 수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최저임금은 2012년 이래 월 684 유로 수준에서 동결
- 실업률 : (14년) 26.5 → (15년) 24.9 → (16년) 24.7 → (17년) 23.6

○ (재정건전성) 만성적 재정적자로 경제위기가 초래되었는바, 그리스는 구제금융협정에 따라 재정수지의 흑자 기조로 전환하기 위해 강도 높은 개혁조치를 이행중임.

- 재정수지(GDP 대비 %) : (14년) −3.6 → (15년) −7.2 → (16년) −3.1 → (17년) −1.8
- 국가부채(GDP 대비 %) : (14년) 180.1 → (15년) 176.9 → (16년) 182.8→ (17년) 178.8

❑ 기타사항

○ 대사관 면담 및 대사관 만찬 사진을 찍지 못해 명함으로 대체

- 그리스 측 참석자: 안영집 주 그리스 대사, 김유철 공사참사관, 이창규 부영사, 김두식 코트라 아테네 무역관, 주 이탈리아 무관
  (안영집 대사, 이창규 부영사의 경우, 일정 1일째에만 면담함)

2 그리스 정치 및 재정정책 - 그리스 국회의원 면담-

1. 기관, 방문자 소개 및 인사말씀

❑ 면담자1 소개: **Mr. Theodoros Karaoglou**

면담자 Mr. Theodoros Karaoglou 약력

- ❑ **Profession: Economist, Employee of the Civil Tax Service**. He has studied Business Administration at the Graduate School of Industrial Studies in Thessaloniki.
- ❑ Chairman of Greek-Korean Friendship Committee
- ❑ **Elected MP (ND) for Thessaloniki B in the general elections of 2004, 2007, 2009, 2012 (May and June).**
- ❑ Appointed Alternate Head of Economic Policy of ND (2010)
- ❑ Appointed Alternate Head of Labor, Social Security and Providence Policy of ND (2011)
- ❑ Appointed Head of Macedonia and Thrace Policy of ND (2012)
- ❑ Minister of Macedonia and Thrace since June 2012
- ❑ 소속 위원회: Standing Committee on Social Affairs, Special Permanent Committee on Greeks Abroad

❑ 면담자2 소개: Mr. Konstantinos Koukodimos

면담자 Mr. Konstantinos Koukodimos 약력

- ❑ 1994 Awarded as Leading Athlete of sports Greece from Greek sportscasters Union.
- ❑ 1992 Awarded as Leading White Athlete in the world from IAAF in the sport of long jump
- ❑ 1992 Participation in the Mixed Team Europe in the World Championship of Nations –Cuba.
- ❑ Founding member secretary and member of cultural and charity unions in Greece.
- ❑ Since 1992 Business action in Greek and international companies by Franchising.

❑ 2004-2006 General Secretary of Sports.

❑ 소속 위원회: Standing Committee on Cultural and Educational Affairs, ?Standing Committee on National Defense and Foreign Affairs, Committee on Parliament's Finances, Committee on the Parliament's Library

❑ 기타 소개: 외교부 행정원

○ Mr. Vobiris(International Affairs Division, Hellenic Parliament, 2103733865)

○ Mrs.Kehagia(Diplomatic Office, 210 370 7064)

❑ NABO 기관 및 방문자 소개 등

❑ 기타 참석자: 김유철 주 그리스 공사참사관, 박민기 전문관

2. 한국-그리스 관계 소개[2)]

❑ 양국관계 일반

○ 한-그리스 양국은 선박·해운 분야 실질협력 윈-윈 파트너임.

- 한국은 세계1위 조선강국, 그리스는 세계1위 해운강국 (세계 해상운송 물동량의 23% 차지)으로서, 그리스 선주들은 한국 조선업체들의 가장 큰 고객
- 당관은 2016.6.6.-10간 아테네에서 개최되는 세계 3대 해양 박람회인 '포시도니아 박람회' 계기에 한-그리스 해양협력 포럼 개최(6.8)

※ 드리차스 해양부 장관, 마르다스 외교부 차관 등 한국, 그리스 등 해양 관련 고위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하는 등 성공적으로 개최

○ 양국은 UN 등 국제무대에서도 긴밀히 협력중임.

2) 실제 회의에서는 인사말씀 이후 양국관계 일반 및 한국전 참전, 문화교류 등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으며, 문화·관광 협력 및 교역 동향 자료 중에서 상세한 날짜가 포함된 자료는 추후 대사관으로부터 받은 자료임

- 남북관계 등에서 우리 입장 적극지지
- 최근 2013-14 유엔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 지지

❑ 한국전 참전

○ 그리스는 한국전에 1만 명을 파병, 196명 전사함.

○ 당관은 참전용사 뿐만 아니라 후손에 대한 지원을 확대중임.

- 참전용사 및 후손 방한초청사업, 후손에 대한 장학금 지급
- '평화의 사도 메달'수여식 개최를 통해 참전용사 격려

※ 아테네 및 테살로니키에 한국전 참전기념비가 세워져 있음

❑ 문화·관광 협력

○ 그리스에 매년 한국 관광객 5만여 명 이상이 방문함.

- 2016년 2-4월 한국에서 "태양의 후예" 방영으로 그리스 방문객들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
- 2015.7-8월 대한항공은 2004년 아테네 올림픽이후 최초로 서울-아테네 직항 전세기 취항

○ 그리스는 유럽문명의 발생지이자 문화 강국인 바, 당관은 다양한 문화 및 공공외교 행사를 개최하고 있음.

○ 2016년 주그리스 대한민국 대사관 주최 문화행사

- 4.18-20 : 아테네 한국 영화 주간
- 5.12-15 : 테살로니키 한국 주간
- 7.4 : 아테네 K-POP 경연대회 개최(아테네)
- 9.13-14 : 크레테 한국 주간
- 9.28-29 : 히오스 한국 주간
- 10.21 : 국경일 리셉션
- 11.10-12 : 한-알바니아 수교 25주년 기념 한국 주간
- 12.14-15 : 코르푸 한국 주간

- 12.16 : 한류동우회 공동 주최 문화행사

❑ 한-그리스 교역 동향

○ 한국무역협회 통계(단위 : 백만불, 2016.11기준)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1-10.
수출액	,1209	1,350	1,909	884	1,049	1,313	1,734
수입액	82	91	248	272	411	247	130
교역규모	1,291	1,441	2,157	1,156	1,460	1,560	1,864
무역수지	1,128	1,259	1,661	612	638	1,066	1,604

○ '15년 對그리스 수출은 13.1억불을 기록하여 전년 대비 57.7% 증가함.

- 경제위기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은 그리스 선주들이 한국 선박 수입을 확대하여 수출이 대폭 증가

※ 주요 수출 품목(2015년 기준) : 선박(10억불, 80%), 플라스틱·제품(53백만불), 유기화학품(36백만불), 커피 등 조제식료품(27백만불), 보일러(27백만불), 휴대폰 등 전기기기(24백만불), 철강(21백만불), 기차차량·부속품(12백만불), 메리야스편물(5백만불), 사진기 등 광학기기(5백만불) 등

- 2016년에는 그리스 선주들이 글로벌 경제 불황, 국제 교역 위축, 원유 등 원자재 가격 하락 등에 따라 신규 선박 발주에 소극적일 것으로 보여, 우리의 수출 전망이 밝지 않을 것으로 전망

○ '15년 對그리스 수입은 2.4억불을 기록하여 전년 대비 39.9% 감소함.

- 2015년 對그리스 수입은 최근 글로벌 유가하락에 따른 나프타 수입 감소 및 그리스 경제위기, 자본통제 등에 따라 40% 가량 감소되었으며, 2016년에도 감소세 지속 가능성 상존

※ 주요 수입 품목(2015년 기준) : 나프타(2.1억불, 85%), 대리석 등 석재(355만불), 의약품(246만불), 잎담배(239만불), 가공농산품(197만불),

모피(176만불), 원심분리기 등 여과기(131만불), 올리브오일(120만불), 군용무기(119만불), 과일주스(105만불)

- 2016년에는 원유 가격 하락, 중국 시장 위축 등으로 나프타 수입이 활성화 될지 불투명하나, 가공농산품, 올리브오일, 과일주스 등 그리스의 농산물 수출은 계속 확대될 전망

3. 의원내각제 체제하에서 국회지원조직의 역할

❑ (질문) 의원내각제 체제하에서 국회지원조직의 역할은 어떻게 되는지?

❑ (답변)

○ 그리스는 내각책임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현재 대통령, 총리, 의회의 구성 등에 대해 설명함; 그리스는 1986년 3월 대통령의 주요 권한을 내각과 의회에 부여하여 대통령은 의례적이고 상징적인 권한만을 갖게 하고, 의회와 총리의 권한을 확대

- 대통령: Prokopis Pavlopoulos (2015.3~, 임기 5년, 의회간선)
- 총리: Alexis Tsipras (2015.1 취임, 시리자당)
- 의회: 단원제(의석수 300석, 의원임기 4년); 국회의장: Nikos Voutsis (2015.10 취임, 시리자당)
- 정당: 2015.9.20. 총선 결과 시리자(급진좌파연합), 희랍독립당 연립정부 유지; 시리자(145), 신민당(75), 황금새벽당(18), 사회당(17), 공산당(15), 포타미당(11), 희랍독립당(10)

○ 의회는 대통령 선출권, 수상후보자 추천권, 대통령 및 각료 탄핵권, 내각 불심임권, 국민투표실시 요청권 등 헌법이 정한 다양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입법권과 대정부 통제권임

○ 그리스 의회에는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처가 설치되어 있으며, 사무처의 주요 부서로는 법률자문국, 입법사무국, 위원회사무국, 국제국, 인력관리국, 재정기술국 등이 운영됨(Scientific Service, General

Directorate of Legislative Work and Parliamentary Control, General Directorate of Parliamentary Committees, General Directorate of International Relations and Communication, General Directorate of Human Resources, General Directorate of Financial Services and Technical Suport)

4. 예산 과정

❑ (질문) 예산과정에 대해 설명해달라

❑ (답변)

○ 매년 10월 재무부가 예산안을 상정하면, 국회의원 전체의 1/6(50명)이 참여해서 결정하는데, 이들은 대부분 경제학을 전공하고 있음

○ 매년 11월 상반기에는 법제처, 예산처에서 논의를 하고, 11월 하반기에는 예산상임위원회에서 논의를 함

○ 12월 중 국회 표결위에 상정하여 최종 승인됨

○ 예산 최초 상정안과 확정예산과의 차이에 대한 추가 질문에 대해 두 수치 간의 차이가 거의 없으나, 예산과 결산의 경우에는 차이가 큰 편이라고 답변함

5. 고대 그리스 및 현대 민주주의의 특징과 정수

❑ (질문) 그리스는 직접 민주주의의 발생지이며, 최근 한국은 민주주의의 발로를 겪고 있음. 고대 그리스 및 현대 민주주의의 특징과 정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답변)

○ 국회의원 출마 전에 재무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으며, 숫자를 주로 다루

는 기관에서 철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근무하는 것에 대해 매우 감명을 받았음

○ 민주주의는 정치체제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페리클레스 연설에 나타난 바와 같이 민주주의를 위해 힘쓴 사람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 누구나 평등하다고 인정하는 분위기, 대화와 관용도 하나의 형태라고 생각함

- 5천년 역사 중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역사는 페리클레스 연설[3]을 기점으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음
- 터키에게 약 40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지배를 받았지만, 그리스가 민주주의의 중심에 있는 것은 그리스 사람들은 민주주의, 대화, 관용에 대한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더 넓은 사회(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고 있는데 기반함

❑ 그리스에서 자랑스러워하는 페리클레스 연설문 사본을 선물로 받음

6. IMF 채권단에 대한 증세조치 규모 및 증세수단

❑ (질문) IMF 채권단에게 약속한 증세조치의 규모와 증세수단은 무엇인지?

---

3) 기원전 431년 말엽, 페리클레스는 지난 12개월간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죽은 모든 이들을 위해 아테네에서 열린 공공 장례식에서 그 유명한 연설을 했다. 지난 30년 동안 페리클레스는 파르테논 신전의 건축을 주관하고 이른바 '황금시대'를 이끄는 등 아테네의 뛰어난 인물이었다. 그러나 그가 그리스의 다른 도시에 점점 더 호전적인 형태의 제국주의를 행사하면서, 결국 기원전 432년 스파르타와의 전쟁이 발발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 피비린내 나는 전쟁은 약 30년간 계속되며, 아테네 민주주의에 완전한 패배와 파괴를 안기게 된다. 그러나 전쟁이 시작된 무렵인 기원전 431년 페리클레스는 연설을 통해 아테네 시민의 기상을 드높이고자 했다.

역사가 투키디데스는 죽은 이들의 유골을 사이프러스 나무 관에 담고, 유해를 거두지 못한 이들을 위한 빈 관과 함께 전쟁에서 죽은 이들에게 바치는 공공 무덤으로 실어가는 장례 행렬에 대해 기록했다. 그리고 페리클레스가 연설을 시작했다. 페리클레스의 연설문이 그 자신이 쓴 것인지 역사가가 지어낸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아테네의 민주주의, 자유, 평등, 그리고 제국의 영광에 대한 감동적인 찬양을 담고 있다. 마지막으로 페리클레스는 전사자들을 찬미하고, 산 자로 하여금 동일한 정신을 이어갈 것을 간곡히 당부했다.

그의 훌륭한 연설에도 불구하고, 아테네인들은 전쟁이 나아가는 형세에 점점 더 불길함을 느끼게 되었다. 특히 지독한 전염병이 발생하자 불만은 극에 달했다. 페리클레스는 권력을 계속 유지했으나, 기원전 429년, 그도 결국 전염병에 굴복해 죽고 만다.(출처: 죽기 전에 꼭 알아야 할 세계 역사 1001 Days, 2009. 8. 20., 마로니에북스)

❑ (답변)

○ 2009년 경제위기 이후 그리스의 세수가 매우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와 함께 면세 기준이 감소함

- 소득세 면세기준은 €12,000에서 €9,000으로 감소
- IMF의 요구는 세금 인상보다는 면세기준 하향 조정에 가까우며, €5,000까지 내릴 것을 요구한 바 있음

○ 각국 외교단의 경우 정당의 입장보다는 국가입장을 말해야하지만, 여기서는 정당(신민당 소속)의 입장을 밝히고자 함

- 국부를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정부는 세금 인상을 선택하였으나, 정당의 입장에서는 증세 외의 다른 방법, 즉, 지출 축소 방법을 연구하고 있음.
- 세금 인상에는 한계가 있고, 채무를 이행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상황임. 현재 체납 규모는 €920억이며, 이에 대한 이자 비용도 매우 높음
- 정당/의원들은 세금 인상은 비효과적이며, 면세기준을 하향조정하는 것도 상황을 악화시킬 것으로 생각하고 있음
- 정부가 주장하는 세금인상 수준은 기업활동을 못할 수준으로, 29%까지 상향조정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렇게 되면 기업은 문을 닫고, 실업률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음

7. 탈세 근절을 위한 노력

❑ (질문) 그리스에서도 탈세 문제는 매우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음. 특히 그리스 공무원이 수영장에 대한 재산세 탈세를 파악하기 위해 구글 지도로 수영장을 찾았다는 일화가 한국에서도 회자되고 있음. 그리스의 탈세 근절을 위한 노력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 (답변)

○ 탈세는 전 세계적 문제이며, 그리스는 더욱 심각한 상황임

○ 2016년 현재 탈세의 가장 큰 원인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고 생각하며,

각 원인별로 개선책이 도출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음

- (1) 정책적 원인: 세금이 소득을 기반으로 한 것이라기보다는 생활수준 평가 기준을 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 예를 들어 별장, 자동차, 지출 수준등을 사용하여 납세자가 내야 할 세금 수준을 결정하려고 하고 있음. 이와 같이 객관적인 기준이 없어 형평성이 부족하며 불완전한 정책이라고 평가하고 있음 → 세금 부과 기준의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
- (2) 세금의 복잡성: 복잡성이 매우 큼. 그리스의 세금은 회계사도 잘 모를 정도로 복잡하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손발을 들고 있음 → 단순화가 필요함
- (3) 행정자원의 문제: 정부는 전산화 추진을 하지 않고 있음. → 행정개혁을 통해 모든 재무부 직원들이 최신 기술을 적용하고, 정보교류를 쉽게 하며, 객과적인 정보를 만드는 훈련이 필요함

8. 마무리

❑ 그리스 국회의원 측은 이러한 면담을 의무가 아닌 애정으로 참가하였음을 표시하고, 양국 및 NABO 기관과의 향후 교류 증진을 기대

9. 기타사항

❑ 국회의원 면담 후, 국회의사당 회의실 참관 및 사진촬영은 안보상의 이유로 불가능하였으나, 국회의사당 내부 곳곳을 소개받음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Young-jip Ahn

Ambassador of the Republic of Korea

gre.mofa.go.kr/English

Athens Tower A 19th Fl., 2-4 Messogion Ave.,
115 27, Athens, Greece
Tel +30-210-698-4080/2 Fax +30-210-698-4083
yjahn97@mofa.go.kr

주그리스대사관

김 유 철

공사참사관

gre.mofa.go.kr

Athens Tower A 19th Fl., 2-4 Messogion Ave.,
115 27, Athens, Greece
Tel +30-210-698-4080/2, Fax +30-210-698-4083
Mobile +30-697-472-8410
ychkim4jesus@gmail.com

주그리스대사관

이 창 규

3등서기관 겸 부영사

gre.mofa.go.kr

Athens Tower A 19th Fl., 2-4 Messogion Ave.,
115 27, Athens, Greece
Tel +30-210-698-4080/2, Fax +30-210-698-4083
Mobile +30-697-472-8411
cglee07@mofa.go.kr

주그리스대사관

박 민 기

전문관

gre.mofa.go.kr

Athens Tower A 19th Fl., 2-4 Messogion Ave.,
115 27, Athens, Greece
Tel +30-210-698-4080/2(ext.25),
Fax +30-210-698-4083 Mobile +30-6987-141-002
Mjpark10@mofa.go.kr

HELLENIC PARLIAMENT

KONSTANTINOS KOUKODIMOS
MP for Pierias - NEA DEMOKRATIA

16 Ag. Lavras, 601 00 Katerini - Greece
Tel.: +30 23510 22495, Fax: +30 210 23510 39829
info@koukodimos.gr

4 Voulis, 105 62 Athens - Greece
Tel.: +30 210 370 6139

ΘΕΟΔΩΡΟΣ ΚΑΡΑΟΓΛΟΥ
Βουλευτής Β' Περιφ. Θεσσαλονίκης
ΝΕΑ ΔΗΜΟΚΡΑΤΙΑ

ΠΟΛΙΤΙΚΑ ΓΡΑΦΕΙΑ

Μοναστηρίου 13
Τ.Κ. 546 27, **Θεσσαλονίκη**
Τηλ.: 2310 525 545
Fax: 2310 525 547

Μητροπόλεως 1
Τ.Κ. 106 67, **Αθήνα**
Τηλ.: 210 3709321-2
Fax: 210 3709320

www.karaoglou.gr • info@karaoglou.gr • Κιν.: 6944 770 782

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김 두 식

아테네 무역관 | 관장

T +30-210-654-3623/4 M +30-696-430-1713
F +30-210-654-3508 E dskim@kotra.or.kr

6th Fl., 5 Chatzigianni Mexi Str., GR-115 28, Athens, Greece

대한민국의 꿈은 수출입니다

Global Business Platform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John Courpas
Senior Commerce & Investment Advisor
Korea Business Center - Athens
Commercial Section (KOTRA)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6th Fl., 5 Chatzigianni Mexi Str.,
GR-115 28, Athens Greece

Tel 30-210-654-3623/4
Fax 30-210-654-3508
E-mail courpas@kotra.or.kr

IOBE
FOUNDATION FOR ECONOMIC & INDUSTRIAL RESEARCH

Nikos Vettas
Director General

Tel.: +30210 9211 271
+30210 9211 233
e-mail: vettas@iobe.gr

www.iobe.gr

11, TSAMI KARATASSOU
GR 117 42 ATHENS GREECE

Tel.: +30 210 9211 200 - 10
Fax: +30 210 9233 977, +30 210 9228 130

※ 참고자료: 면담 기관 교체 경위

❑ 당초 그리스 의회재정기관(PBO; Parliamentary Budget Office) 및 예산결산위원회(Committee on the Financial Statement and the General Balance Sheet and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State Budget)를 방문할 계획이었음

○ 최근 그리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추가 재정건전화 조치 및 독립재정기관으로서 당면한 공통과제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었음

❑ 그러나 그리스 당국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2016.12.12. 출발 직전 PBO 방문이 어렵다는 연락을, 2016.12.13. 그리스 현지에서 예산결산위원회 방문이 어렵다는 연락을 유선으로 받아 국회의원 면담과 연구기관 방문으로 변경됨.

3 그리스 경제 전망 및 지하경제 축소 정책 -IOBE 면담-

❑ 기관 개요

- ○ 기관명 : 그리스 경제산업연구소
- ○ 영문명 : Foundation for Economic and Industrial Research
- ○ 설립연도 : 1975년
- ○ 기관 성격 : 민간 연구기관
- ○ 주요 기능 : 그리스 거시경제 분석, 정책 수립, 해외 연구기관과 협력 등
- ○ 소장 : 니코스 베타스(Nikos Vettas) 소장
  - – 전임 소장 야니스 스투르나라스(Yannis Stournaras)는 현재 그리스 중앙은행 총재로 재임

❑ 면담자 약력

면담자 약력: Nikos Vettas

성 명	니코스 베타스(Nikos Vettas)	
직 위	그리스 경제산업연구소(IOBE) 소장	
학 력	펜실베니아 대학교 경제학 박사	
주요 경력	·2013 – 현재 : 그리스 경제산업연구소 소장 ·2007 – 2011 : 그리스 아테네 대학교 경상대 학장 ·2003 - 2009 : 유럽 산업경제연구협회 최고위원 ·2000 - 2003 : 그리스 경쟁규제위원회 의장 ·1998 - 2002 : 듀크대 부교수 ·1994 - 1998 : 듀크대 조교수 ·1994 : 유럽 산업경제연구협회 젊은경제학자상	

❑ 기타 참석자: 김두식 코트라 아테네 무역관, John Courpas 코트라 아테네 무역관

❑ 그리스 경제 전반에 대한 개요(Brief explanation)

○ 2008년 경제위기 이후 2014년을 제외하고 매년 마이너스 성장을 하였으며, 2015년에는 2008년 대비 GDP가 25% 감소

○ 2008~2009년 재정적자가 급증하였으나, 2010년부터 상당한 개선이 있었고, 이 조정은 2014년까지 진행된 후 중단됨.

- 일반회계 기준의 적자는 2009년 GDP의 15%에서 2013년 GDP의 1~2%로 급감하였고, 일반정부 재정적자는 2009년 GDP의 10%에서 2013년 2% 흑자로 전환되었음
- 2003년 이래로 2013년에 처음으로 흑자를 달성하였고, GDP 성장률은 2007년 이후 2015년에 처음으로 증가함

○ 재정적자 축소 노력

- 그리스 경제에서는 쌍둥이적자(경상수지 적자 및 정부적자) 문제가 심각했는데, 재정수지 적자 축소를 위해 그리스 정부는 매우 노력하였음. 특히 2009년에는 그리스 GDP가 감소하기 시작하면서 재정확대를 통한 회복이 어려웠음. 경기침체로 인해 세금징수 및 지출 긴축이 쉽지 않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출을 축소하고, 세율을 올리고, 공공부문에서 해고를 하고, 급여를 낮추는 등의 노력을 통해 재정적자를 감소시켰다고 설명함. (본인의 월급 또한 2008년에 비해 약 35%가 감소하였다고 설명)

○ 추가적인 재정건전화 조치가 있었다면 설명해달라는 질문에, 연금 구조조정 등 이미 설명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는 젊은이들의 연봉이 매우 낮기 때문에 세수증가가 어려웠으며, 과세베이스 확대에 노력했다고 설명함(여기서 지하경제에 관한 논의가 이어졌으나, 본 보고서에서는 후술함)

❑ 2016년 GDP 전망

○ 상반기에는 감소, 하반기에는 증가 하는 U자 형태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결국 실질(in real terms)로는 0%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 당초 2016년 예산상 전망은 -0.3%였으나, 실제로는 이보다 나아졌는데, 이는 전자지급수단(electronic payment)으로 인한 과세노출 등에 따른 GDP 증가로 보고 있음(여기서 탈세 문제에 관한 논의가 이어졌으나, 본 보고서에서는 후술함. 다만 최근 그리스 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탈세 중에서도 건설업에서의 탈세, 이민자 증가 및 실업 증가에 따른 문제점을 크게 보고 있다고 부언함)

○ 경제전망 횟수 및 방법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일년에 3번~4번 정도 전망하고 있다고 설명

❑ 그리스 경제의 주요 특징

○ (1) 집 소유주가 많으며, 이에 따라 경제가 활력을 잃어버림. 집이 없으면 직장을 구하기 힘들며, 집이 있으면 직장을 잃어도 저축이 가능함. 요즘 젊은 세대의 경우 부모와 같이 사는데, 이는 대부분 rent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임

○ (2) 혈연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이에 대한 종속이 심함(family tight). 예를 들어 6촌(second cousin)에게 문제가 생겨도 발벗고 나서서 도와주며, 매우 강한 가족 지원체계(strong support network)를 가지고 있음

○ (3) 지하경제 규모가 상당히 큰 것으로 보고 있음. 특히 고소득자(heavy income)의 소득 파악이 어려워 보임

○ (4) 위의 3가지 문제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악화되고 있음. 이에 따라 경제 전반의 활력이나 분위기(mood)가 10년 전과 비교해 매우 달라졌음.

- 실업률이 2배로 증가; 2007년 투자는 65bn(GDP의 27%)에서 2015년 20bn(GDP의 10%)으로 약 1/3로 축소됨; 2015년의 투자 수준은 경제가 지속가능하지 않은(unsustainable) 수준으로 판단하고 있음

❑ Brexit의 영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 (1) 그리스 경제는 매우 관광산업 위주의 경제이고, 파운드화 가치하락에 따라 유로화가 15% 비싸졌으며, 이에 따라 관광수지 증가 및 GDP가 증가할 것으로 봄. 실제로 2016년 관광인구가 1,000만명에서 2,600만명으로 증가함. 특히 터키의 불안에 따른 반사이익도 존재했음

○ (2) 유로 존에서 탈퇴한다고 생각하면 그리스는 아마 마지막까지 남을 것이라고 생각함.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과 같이 크거나 부유한 국가의 경우 탈퇴 유인이 높지만 더 작은 경제규모를 가지고 있는 핀란드나 네덜란드의 경우에는 그 반대이며, 탈퇴한다고 해도 영향이 크지 않을 수 있음(사실 이러한 영향에 대해서는 Nobody knows. 즉, 아무도 모른다라고 설명하며, Brexit 역시 처음에는 무슨 의미인지 아무도 몰랐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임)

❑ 그리스의 지하경제 규모와 지하경제 축소 방안

○ (질문) 한국에서는 신용카드 사용을 독려하는 인센티브가 2005년 전후로 도입이 되었으며, 이는 세수 증대에 큰 영향을 끼쳤고, 최근에는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이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7%에 이르는 등의 진전이 있었음. 그리스에서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지?

○ (답변) Nikos Vettas 소장은 지하경제의 규모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하면서도, 그리스의 지하경제 규모는 매우 큰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답변. 또한 한국에서의 신용카드 사용 등에 대한 성공적인 경험을 알고 있다고

이야기하며, 그리스에서도 최근 그리스에서는 전자결제수단(Electronic Means of Payment; EMP)을 사용한 세원포착의 증가로 지하경제 규모 축소 및 세수 증대를 도모하고 있다고 함

- 해당거래가 은행의 정보 시스템에 기록되어 거래 및 소득에 대한 세무 조사를 용이하게 함.
- 그리스에서 전자결제수단을 사용하는 것은 타 EU국가들에 비해 뒤떨어진 수준이었음. 그리스에서의 EMP 사용 저조의 주된 이유는 소매업과 기업가 정신 전반의 파편화된 구조뿐만 아니라 거래전자시스템의 안정성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 때문인 것으로 드러남. 또한 금융위기 및 고속 광대역 연결(high speed broadband connections)의 낮은 보급률도 EMP 사용 증가를 억제하는 역할을 함.
- 이런 장애물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 전자거래가 소비자의 일상적 습관이 되는 것을 방해하게 됨(EMP와 같은 상품에 대한 네트워크 효과의 긍정적인 영향을 극대화하는 충분한 거래가 축적되는 것을 방해할 수 있게 됨)
- 특히 EMP 보급 초기단계에서, 지하경제의 한계와 네트워크 효과로 인한 대상 개입의 필요성에 대한 EMP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재정문제가 있는 여러 국가(예:한국, 이탈리아, 아르헨티나 및 우루과이)는 EMP 사용 활성화를 위한 장려책(incentives)이나 행정 조치(administrative measures)를 취한 것으로 알고 있음. 장려책은 EMP로 이루어지는 거래의 가치를 감소시켜주는 것으로, 소득세 및 법인세 할인, EMP 거래 목표치 달성 및 EMP 거래를 위한 복권이 포함됨.
- 부가가치세 격차(VAT gap, 부과한 부가가치세액과 실제 징수한 부가가치세 입액의 차이) 역시 EMP 사용과 부정적인 상관 관계가 있음. 그리스는 부가가치세 격차를 기준으로 EU 26개국 중 39%로 3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동시에 EMP 확산 수준에서 크게 뒤떨어져 있음.
- 결과적으로, EMP를 사용한 거래가 은행기관의 IT 시스템에 기록되어 과세대상자산을 숨길 수 있는 가능성을 제한하기 때문에 EMP 사용률이 높아지

면 경제투명성이 향상됨.

- EMP를 대규모로 도입하면 중개서비스비용이 절감되고 새로운 서비스가 개발되고 제품 및 서비스시장에서의 경쟁이 심화되며 소비 및 경제활동이 향상됨.
- 카드사용 증가로 인하여 2003~2008 사이 실질GDP성장률이 연평균 0.2%p 상승한 것으로 추산됨

○ 참고로, Schneider 외(2012)에 따르면, 1999~2010년 기준 OECD 국가의 평균 지하경제 규모는 GDP대비 18.4% 수준이며, 우리나라의 경우 약 26.3%에 해당(OECD 33개국 중 6번째로 큰 규모); 그리스는 약 27%로 우리보다 높음

- 2010년 기준으로 OECD 국가의 평균 지하경제 규모는 GDP대비 17.9% 수준이며, 우리나라의 경우 약 24.7%에 해당; 그리스의 경우 25.1%
- 1999~2010년 사이에 GDP대비 지하경제 규모가 가장 많이 감소한 국가는 폴란드이며, 우리나라는 3.6%p 감소하여 33개국 중 4위를 기록

❑ 그리스 경제와 한국 경제 전반에 대한 마무리 발언

○ 그리스 경제와 한국 경제는 경제규모, 지하경제, 정책수단 등에서 많은 공통점이 있지만, 한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면 그것은 통화정책이라고 생각함. 그리스의 경우 독립통화(national currency)가 아니기 때문에 마이너스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통화정책을 사용하기 어려움

○ 그리스의 지난 4년간 인플레이션은 마이너스(-)였으며, 2016년 공식 소비자물가지수는 -1 이고, 비공식으로는 이것보다 더 낮을 것으로 보고 있음

4 학회 참석

❑ 제5차 “경영·경제·사회과학·인류애에 관한 국제 컨퍼런스(BESSH conferenc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Business, Economic, Social Science & Humanities) 참석

○ 제5차 BESSH 컨퍼런스는 그리스 아테네에서 2016.12.15.~12.16 간 개최

- BESSH 컨퍼런스는 경영·경제 등 사회과학 분야 전문가집단의 국제학술대회로서, 매년 경제·문화 등 사회과학분야의 폭넓은 이슈를 중심으로 국제회의를 통해 관련분야 전문가들의 지식을 공유하고 협력을 도모

○ BESSH 학회에서 발표되는 논문들에는 SCOPUS 등급의 저널에 실릴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됨

- SCOPUS는 네덜란드의 엘스비어 출판사가 2004년에 만든 전 세계의 우수 학술논문 인용지수로, 1960년에 만든 SCI 보다 최근에 만들어졌으며, 한국에서 보통 ‘SCI 논문’이라고 할 때 SCOPUS 논문도 포함해서 지칭

❑ 이번 학회는 경제 분야보다는 경영 및 교육, 과학기술 분야의 논문이 주로 발표되었으며, 주요 세션은 다음 표와 같음

Track A: Business, Management and Social Sciences

ATS-3126-108	Knowledge Synergy: A case of Research in Universities	Nuha Nizam
ATS-3126-115	Student Satisfaction At The Campus: An Investigation From A Turkish University	Cevdet Yilmaz
ATS-3126-117	International Student Recruitment In Policy And Practice: A Research From Turkey	Devrim Vural Yilmaz
ATS-3126-109	Reviewing the Evaluation : a Critical Analysis on Quality Assurance in Greek Universities	Stylianos Dimitriou
ATS-3126-113	Efficient Project Management for Businesses and Research Institutes	Stylianos Dimitriou

Track B: Engineering and Technology

ATE-3126-104	Modern tools supporting visual inspection the fire scene	Bożena Kukfisza
ATE-3126-107	Positioning errors prediction through MEMS-INS/GPS data fusion	Teodor Lucian Grigorie

Track C: Medical, Medicine and Health Sciences

ATM-3126-101	Antidiabetic drug consumption and relation to the public health in Kosovo	Arianit Jakupi

❑ 국제화 및 우수학생 유치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논문 청취 및 토론(International Student Recruitment In Policy And Practice: A Research From Turkey, Devrim Vural Yilmaz)

○ 발표자: Devrim Vural Yilmaz

○ 주요 내용

– 국제화는 고등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이슈임. 최근 국제 교육 부문이 크게 성장하였는데, 학생들의 국제 이동성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학생은 1975년 80만명이었으나, 2012년 450만명으로 증가, 2020년에는 700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북미, 유럽의 경우 이러한 경험이 오래 되었으나, 오늘날에는 이러한 전통적인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도 국제 학생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이 많음. 이러한 나라들은 국제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들을 개발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터키에서의 경험을 소개

○ 토의 내용

– 우수한 학생의 유치를 위해서는 교육비 장학지원, 주거지원, 의료지원 등의 영향이 클 수도 있으나, 사실 우수한 학생의 유치는 취업시장 문제가 가장 크게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함. 미국의 경우, 기업 후원으로 전문직 비자 프로그램을 운영

– 일본도 각 부처가 이공계 석사급 이상 고급인력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영국도 2005년 토니블레어 정부에서 '유학생 유치 5개년 전략'을 발표, 외국인 유학생 학위취득 후 체류허용비자(post-study work visa)를 발급, 호주, 캐나다에서도 유사 정책 발표

– 교육정책, 외국인출입국정책, 고용노동정책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것이 필요

– 한국에서는 Global Korea Scholarship(정부초청 외국인장학생)제도가 있으나, 지속적으로 외국인유학생 수 감소 중

– 각 정책별로 요인별 분석과 관련한 실증분석이 추가될 필요

❑ 대학평가 학생 만족도 평가에 관한 연구 논문 청취 및 토론(Student Satisfaction At The Campus: An Investigation From A Turkish University)

○ 발표자: Cevdet Yilmaz

○ 주요 내용

– 고등교육은 최근 몇 년간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대학은 전통적인 역할 이외에 서비스 공급자로로 인지되고 있는데, 이러한 관점에서 질(quality)의 개념 역시 다차원적으로 변하고 있음. 학생들은 주요 이해관계자이기 때문에 학생이 참여하는 연구의 증가, 대학 시설의 서비스 품질 등이 측정될 필요성이 있음. 이 연구는 이러한 평가지표에 대해 연구, 설문조사 및 설문조사 결과를 정리

○ 토의 내용

– 기존의 학교에 대한 평가가 학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평가는 학생들의 성과에 의해 측정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양적인 개념이 일반적일 수밖에 없으나, 질적인 측면의 평가를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

– 기존에 설문조사 등 정성적 평가로 작성되는 다른 지표들이 권위를 가지기 위해서는 IMD의 부패인식지수 등과 같이 표본의 수(magnitude of the sample), 표본의 대표성(representativeness)이 선행되어야 하나(necessary), 대표성이 선행되기 어려움

❑ 연구 시너지의 측정에 관한 연구 논문 청취(Knowledge Synergy: A case of Research in Universities)

○ 발표자: Nuha Niz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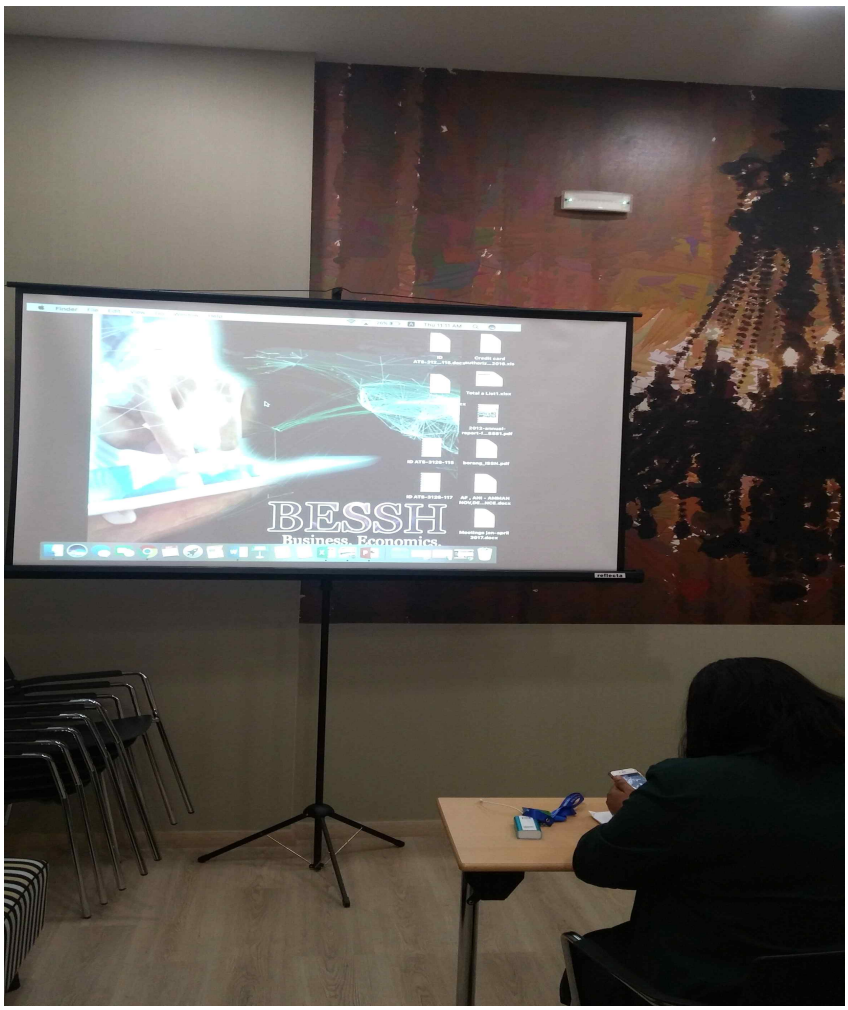
○ 주요 내용

– 연구 결과는 대학의 랭킹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임. 본 연구는 대학에서의 연구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조사. 이 연구는 개인 레벨, 학교 레벨, 네트워크 레벨에서의 요인들을 조사하였고, 보다 종합적인 이해를 위하여 현상연구(phenomenological) 방법에 이어 구성주의방법(constructivism)

으로도 조사함. 랭킹이 다르지만 서로 비슷한 규율(discipline)을 가지고 있는 호주의 두 대학교를 선정하였고, 우리는 25년간(1990-2015)에 걸친 자료를 정리함. 연구 결과, 대학의 연구 성과는 다양한 레벨를 넘나들어서(across multi-level levels that is individual level, school level and the network level) 내재하는 기초능력(underpinning capabilities)의 함수라고 할 수 있었음.

○ 토의 내용

– 각 레벨에서의 요인들에 대한 변수가 애매모호함(ambiguity). 예를 들어 multi-level interactions의 측정은 어떻게 한 것인지? → Knowledge synergy의 개념 자체가 무형자산이며, 연구능력(research capability)의 장기지속성(long-term sustainability)을 설명하는 것임.


BESSH
Business Economics